

아베, '전쟁 가능한 일본' 길 텠다

일본 7·10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 165석 확보 '군국주의화 견제' 한·중 주변국들과 긴장 조성 우려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트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엔 선거

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헌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룬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 들었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당초 목표로 한 합계 61석(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을 훌쩍 넘긴 70석을 획득하며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인 146석(전체의 약 60%)을 보유하게 됐다.

또 민주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

일본 중·참의원 의석수 최종 집계



일본 중·참의원 의석수 최종 집계 (계속)



일본 중·참의원 의석수 최종 집계 (계속)

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어 캐나다에서도 중국인 원정출산 금지 캠페인

佛 라디오 방송 RFI 보도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금지하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 RFI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폐기하자는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 밴쿠버 시민 케리 스타척이 지난달 16일 캐나다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린 지 3주 만에 서명자가 13주에서 3천842명에 달했다. 화교 출신 황천소(黃陳小萍) 의원도 이 청원을 지지하고 나서 캠페인은 힘을 얻고 있다.

스타척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청원서를 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서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을 하면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는 캐나다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그리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후 그의 부모도 캐나다 시민권 획득이 용이해져 의료비 면제, 퇴직보급, 생활 보장 등의 '공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흑인사살 항의 시위하는 美 주민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주거지역에서 10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배턴루지 도심지역에서 조직적인 집회를 가진 후 주거지역과 고속도로 등으로 진출했다. 진압에 나선 경찰은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하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격랑속으로

판결 하루 앞두고 中 무력시위 이어 등대 가동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정의 판결을 하루 앞둔 남중국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가의 반발에도 분쟁 해역에서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고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일도 발생해 남중국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쩡영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 점유하고 있는 4개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 매매 - 1억 6천만원
-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전원주택지

-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 계획관리지역, 위치 좋음
- 36세대중 20세대 거주
-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겸용)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장기투자 최적!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